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위한 '공정여행과 청년의 꿈'

전북과학대, 제4회 남도길 도보행진 성황리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는 특성화사업 R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활동과 공정여행을 목적으로 '제4회 남도길 도보행진'을 성황리에 마쳤다.

3일 전북과학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6월 1일 143명의 학생들과 시민단체 30여명은 '공정여행과 청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전북과학대 교정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장성을 경유 담양까지 도보행진을 시행했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정읍시청 광장, 정읍유채국, 어린이교통공원 등 시내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지역민들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 재학생 합동 플래시몹 댄스를 진행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거리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4회째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하고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정읍시보호관할소 등 7개 단체가 함께 했으며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 류은주 교수)학생들도 참여하여 시민 연대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아동학대 예방 결의문 낭독에 참여한 한재준(수성초 4년)어린이는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편안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씩씩한 발걸음을 함께 하였다.

도보행진의 실행탐방을 맡은 복지계열 2학년 서현미(나눔의소리 회장)학생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복지



전북과학대는 지난 5월 31일~6월 1일 143명의 학생들과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활동과 공정여행을 목적으로 제4회 남도길 도보행진'을 했다.

사들도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공정여행의 필요성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총괄지도를 맡은 송운용 교수(사회복지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보행진 행사가 학생들의 주제적 참여와 실천적 노력으로 전북과학대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학생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공정여행과 청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다졌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인으로서 지역 내 지성인 집단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정음=김대환 기자

김제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현장 교육 실시

김제시 통합관제센터는 최근 관제요원에 대한 CCTV 설치장소 현장답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및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2개조로 나누어 관내 주요 CCTV 설치현장을 방문해 카메라 설치위치에 대한 지리적 특성 등을 숙지하고 사전·사과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교육에 참여한 관제요원들은 "모니터로만 보던 장소에 직접 와 보니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도로의 연계성 등을 숙지 할 수 있어 관제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호원대 사회봉사단, 관내 농촌 봉사활동 펼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사회봉사단 60여명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수면 호산마을과 성자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단은 농로 재정비, 모내기, 보리 베기, 독거노인 주택



위험도 평가, 독거노인 말벗 해 드리기, 마늘 수확 등을 도왔다. 서수면 성자마을 유양열 이장은 "농촌 지역의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해마다 찾아와 찾아와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주택 위험도 평가 및 마을 정화 활동 등을 함께해 고맙다"고 말했다.

김우태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이렇게 많은 손길을 거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또한 한방울의 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지원 재능기부, 지역 노인 치아 건강지원 봉사활동, 농촌 지역 양로당 건강 증진 활동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음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 224호 (서노출)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596)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3088-6874	남원지사 65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영지지사 010-9845-9355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5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2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순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정철모 교수 위촉

순창군이 3일, 황주수 순창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순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정철모 교수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 도시계획위원,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도시재생분야 전문가이다. 앞으로 정 교수는 순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아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민과 행정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내가 먼저 인사해요 운동 추진

남원시는 6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가 먼저 인사해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경직된 공식분위기를 쇄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긍정과 친절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먼저 주무부서인 총무과 전 직원은 3일부터 5일까지(3일간) 청사 주 출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와 함께 스마일쿠기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안성면 신안기공사 장학금 2백만 원기탁

무주군은 안성면 신안기공사 정천수 대표가 최근 무주군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대표는 "지역 기업으로서 수익의 일부지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신안기공사는 2019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중소형, 과수전용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무주군 농기계사후관리봉사업체로도 등록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119소방동요대회 준비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제18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 진안군 관내 부귀초등학교(교장 신덕자) 소속 '꿈드림 합창단'이 출전을 하게 되며, 경연대회는 오는 14일에 실시된다. 꿈드림 합창단(지도교사 유경수)은 2019년에 처음으로 조직된 합창단으로 남다른 나만의 꿈을 디자인하며 행복을 전하는 노래를 하고자 만들어진 합창단으로써, 이번 대회에서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행복을 전할 예정이다.

꿈드림 합창단은, '산타 소방관 아저씨'라는 소방동요로 출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동요는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뛰는 소방관을 위한 노래로서, 빨간 산타 옷 대신 주황색 제복을 입은 산타의 값진 땀방울에 보답을 하는 의미의 노래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